

## 인지적 침투, 결과주의, 그리고 경험적 합리성: 천현득 교수의 논의를 중심으로

윤 보 석<sup>‡</sup>

인지적 침투에 대한 상이한 정의들이 초래하는 방법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과주의적 접근의 옹호자들은 인지적 침투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들에 의해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결과주의적 정의는 그 정의항에 경험의 정당화 역할 상실과 같은 부정적 인식적 함축을 포함한다. 이 논문에서 주목할 한 가지 비판에 따르면, 경험의 인과적 역사는 경험의 정당화 역할과 무관하기 때문에 인지적 침투는 부정적 인식적 함축에 의해 정의되지 않아야 한다. 이 러한 반론과 그에 대한 천현득의 대응을 중심으로 결과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결과주의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천현득의 대응과 다른 대안적 대응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천현득의 대응이 담고 있는 통찰을 보존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주요어】 인지적 침투, 결과주의, 이론적재성, 인식적 함축

<sup>‡</sup>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bosuk@ewha.ac.kr

## 1. 결과주의적 접근의 동기와 내용

인지적 침투에 대한 결과주의적 접근(consequentialist approach)을 옹호하는 이론가는 현재 인지적 침투라는 개념에 대한 상이한 정의가 존재하며 그 난립하는 정의들이 인지적 침투에 관한 과학적 탐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스톡스는 인지적 침투에 대한 기존의 두 가지 정의를 비교한다.<sup>1)</sup>

의미론적 정의: 한 체계가 인지적으로 침투가능하다면, 그것이 계산하는 기능(function)은, 의미론적으로 정합적인 방식으로, 유기체의 목표와 믿음에 민감하다. 즉, 그것은 주체가 이는 것에 대해 어떠한 논리적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 (Pylyshyn 1999, 343)

인과적 정의: 하나의 지각적 경험 E는 (1) E가 어떤 인지적 상태 C에 인과적으로 의존하고, (2) E와 C의 인과적 연결이 내적이고 심적일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인지적으로 침투된다. (Stokes 2013, 650)

스톡스는 이 두 정의가 동일한 현상에 대해 상이한 판결을 내린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전들의 크기에 대해 어린이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피실험자들의 가치관이나 돈에 대한 욕구가 동전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가치관과 정서적 배경이 대상의 크기 지각에 침투하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의미론적 정의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들을 인지적 침투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배경 심적 상태의 내용(나는 돈을 가지고 싶다)이 지각 상태의 내용(저 동전은 크기 n을 가진다)과 의미론적 또는 정합적 관계를 맺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인과적 정의는 위의 사례가 인지적 침투일 가능성에 우호적이다. 동일한 실험 결과가 어떤 정의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인지적 침투로 간주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스톡스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sup>

1) Stokes (2015). 아래 번역은 천현득(2020), 88쪽을 참조하였다.

2) 물론 개념적 혼란이 실험의 의미에 관한 이견을 발생시키는 유일한 원인은 아닐 것이다. 인지적 침투를 보여주는 실험들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다

스톡스가 언급한 두 가지 기준 정의 이외에 다른 정의도 검토하면서 천현득은 스톡스의 진단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 “지각에 인지가 침투하는지 여부가 이렇듯 정의에 따라 달라진다면 마음의 구조와 그것의 인식론적 함축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시도는 어떠한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sup>3)</sup> 천현득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결과주의적 접근이라고 주장한다. 인지적 침투에 대한 심리학적 탐구가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리학자들이 공유된 개념을 가져야 하며 결과주의적 접근이 바로 그러한 정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주의적 정의: 어떤 현상은 그것이 지각과 인지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현상이면서 동시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결과에 대해 함축을 가질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인지적 침투이다.

인지적 침투를 규정하는데 유관한 결과들이 무엇인가? 어떠한 지각-인지 관계가 다음 세 가지 결과들 중 하나를 가질 때 인지적 침투가 발생한다.<sup>4)</sup>

- (i) 관찰의 이론적재성에 우호적인 함축을 가지거나,
- (ii) 믿음의 인식적 정당화 역할에 도전하는 함축을 가지거나,<sup>5)</sup>
- (iii) 모듈적인 인지구조에 반대하는 함축을 가지는 경우.

---

양한 근거들이 있다. Firestone & Scholl (2016) 참조.

3) 천현득(2020), 89쪽.

4) Stokes (2015), pp. 87-90. 천현득(2020), p.90.

5) 한 심사자는 (ii)에 대하여 “이론의존적 지각 경험이 정당화 역할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각의 인식적 정당화 역할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즉 ‘지각의 인식적 정당화 역할에 대한 도전’은 이론의존적 지각 경험이 정당화 역할을 상실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다. 심사자는 정당화 역할이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훼손/손상되거나 또는 “격하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결국, 결과주의적 정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된 지적이다. 필자는 심사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과주의적 정의를 이해한다. 인식적 격하(epistemic downgrade)에 관해서는 Siegel(2013) 참조.

#### 4 윤보석

스톡스는 결과주의적 접근이 인지적 침투에 대한 경험적 탐구에 중요한 방법론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과주의적 접근의 장점은 간단하다: 일단 그러한 분석이 제공되면, 경험적 탐구가 그에 따라 고안되고, 실행되며 그리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지적 침투에 대한 테스트는 인식론과 마음의 구조에 대한 유관한 함축을 가지는 현상들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지적 침투를 논쟁당사자 양쪽의 공통적 관심사와 결부시켜 재정립시킨다.<sup>6)</sup>

정상과학이 의존하는 패러다임은 당연히 핵심 용어에 대한 공유된 정의를 포함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인지적 침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유된 이해가 없다면 도대체 어떤 현상들을 주목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고, 또한 실험 결과들이 축적되더라도 이것이 현상에 대한 향상된 이해로 연결되지 못할 것이다. 건설적인 협업이 가능하려면 과학집단은 공유할 수 있는 정의를 찾아야 할 것처럼 보인다. 개념을 공유한다는 것은 정상과학적 탐구가 진행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이며, 개념적 합의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적 과학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건들 중 하나이다. 스톡스는 결과주의적 정의가 바로 논쟁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정의라고 제안한다.<sup>7)</sup>

---

6) Stokes(2015), p.95.

7) 천현득은 실린스와 시겔도 결과주의적 접근의 정신을 공유한다고 간주한다. 천현득(2020), 90쪽, 각주 7.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눈을 고정하고 앞에 있는 나뭇잎을 보고 있는데, 그 둘은 동일한 외적 자극에 노출되고 동일한 감각 기관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사의 차이에 따라 주의(attention)를 나뭇잎의 다른 성질에 기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나뭇잎의 모양에, 다른 사람은 나뭇잎의 색깔에 주목한다. 주의의 차이에 따라 두 사람의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관심사의 차이가 주의의 차이, 그리고 각각 경험의 차이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인지적 침투로 간주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답하기 쉽지 않으며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실린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뭇잎 사례를 인지적 침투로 간주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이 사례가 최소한 각각의 모듈성 논제에 대해 도전을 제기하거나 또는 경험이 밀

결과주의적 정의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비판들은 무엇인가? 어떤 현상을 규정할 때 그 현상으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들에 호소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 않더라도 정의에 도입된 특정한 결과를 문제 삼을 수 있다. 결과주의적 정의에서 등장하는 세 가지 조건들 중 모듈성 논제와 연관된 (iii)은 통상 심리학적 팀구에서 연구자들이 실제로 염두에 두는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 주체가 가진 신념이나 의견 또는 가치관 등이 세계가 그 주체에게 드러나는 방식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면 이는 정보적 밀봉성(*informational encapsulation*)을 위반함으로 따라서 모듈성 논제에 반대하는 함축을 가지게 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iii)을 인지적 침투를 규정하는데 유관한 조건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그러나 (i)과 (ii)와 같은 소위 “부정적 인식론적 함축(*negative epistemological consequences*)”을 인지적 침투의 정의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경험의 정당화 역할에 대한 도전과 같은 부정적 인식적 함축이 인지적 침투와 자주 결부돼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둘의 연관성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예를 들어, 각 정당화에 대한 내재주의적 입장을 가지는 철학자는 주관적으로 동일한 경험들이 그 인과적 역사에 있어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주관적으로 동일한 경험들은 그 주체의 입장에서 동일한 인식적 역할을 가진다는 원칙을 받아들일 것이다. 내재주의적 원칙에 따르면, 주관적 차이에 반영되지 않는 경험의 인과적 역사는 그 경험이 가지는 인식적 위상과 무관하다. 그런데, 인지적 침투가 정확히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경험의 인과적 역사와 결부된 현상이다. 따라서 어떤 경험이 인지적으로 침투된다고 해도 그 경험의 인식적 역할이 상실되거나 해손된다고 볼 수 없다. 부정적 인식론적 함축에 호소하는 것은 인지적 침투라는 현상을 규정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 결과주의적 정의에 대한 “인

---

음을 정당화하는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주장한다. Silins(2016), p.27. 그러나 실린스가 여기서 결과주의적 정의를 받아들이는지는 분명치 않다. 오히려 실린스는 인지적 침투를 규정하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쪽에 가깝다. 실제로, 실린스는 이론적으로 유용한 정의가 하나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 6 윤보석

식론적 반론”이라고 하자.<sup>8)</sup>

결과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가능하겠지만,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인식론적 반론과 그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결과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한 검토를 통해서 결과주의의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또한 경험적 합리성에 대한 긍정적인 교훈을 추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우선, 다음 장에서 인식론적 반론을 좀 더 상세히 기술한다. 3장에서는 결과주의적 접근의 옹호자가 인식론적 반론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특히, 인지적 침투에 대한 결과주의적 접근에 기반을 두고 관찰의 이론적 재성 논제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천현득의 논의에 주목할 것이다. 천현득의 결과주의는 인식론적 반론에 대한 한 흥미로운 대응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현득의 대응방식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으며 이는 4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마지막 5장에서는 천현득의 대응방식과 다른 대안적 대응을 통하여 천현득의 결과주의가 가지는 한 중요한 통찰을 보존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인식론적 반론

인지적 침투를 둘러싼 논란의 역사를 간략히 되짚어 보기로 하자. 춘은 그의 저술에서 인지적 침투를 보여주는 뉴룩 심리학(New Look

---

8) 인식론적 반론은 결과주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판과 구분되어야 한다. 정의항에 등장하는 조건들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인지적 침투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주의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천현득은 이와 유사한 비판을 언급하고 있다. 천현득(2020), 91쪽, 각주. 그런데, 이 비판은 결과들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인지적 침투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천현득의 지적대로 그 가정이 합당한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인식론적 반론은 결과들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의 어려움보다는 그 결과들 중 일부가 아예 인지적 침투와 무관함을 지적한다.

Psychology)의 실험 결과들을 언급하고 있다. 인지적 침투가 제기한다고 간주되는 인식론적 도전을 다음과 같은 논증의 형태로 정식화해보자.<sup>9)</sup>

경험이 이론의 존적이면 경험의 정당화 역할은 상실된다.

경험은 이론의 존적이다.

따라서 경험의 정당화 역할은 상실된다.

위 논증의 결론을 부정하는 철학자는 최소한 하나의 전제를 부정해야 할 것이다. 뉴록 심리학의 실험들이 위 논증의 두 번째 전제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면, 포더는 모듈성 논제를 용호함으로써 두 번째 전제를 부정한다. 모듈성 논제에 따르면, 경험을 생성하는 지각 기제는 인식 주체의 배경 지식으로부터 차단되어 있거나 혹은 정보적으로 밀봉(informational encapsulation)되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각 기제가 주변 세계에 대한 “가설”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차원적 자극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3차원적 대상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지각 체계가 어떤 일반화들에 의존해야 한다.<sup>10)</sup> 그런데 그러한 일반화는 근접자극(proximal stimuli)과 외적 대상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들이며 과학적 논쟁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과 무관하다. 사실 지각 기제가 개체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것이 진화론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지각 체계가 의존하는 일반화들이 국소적(local) 타당성밖에 가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개체가 생존하고 번식하는 환경에서 그 일반화가 대체로 성립한다면, 그러한 일반화를 내장한 지각 기제는 더 고급스러운 정보에 반응하는

9) 쿤이 실제로 이러한 논증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불확실하다. 사실 인지적 침투는 쿤 저술에서 여러 다양한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다. 인지적 침투는 Kuhn (1962) 6장에서 언급되는데 쿤은 과학적 발견에서 관찰/이론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 쿤은 단순하고 순수한 “사실의 발견”은 지각의 본성에 대한 심리학적 실험 결과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지적 침투에 대한 언급은 10장에서도 나오는데 여기서 쿤은 패러다임이 다른 과학자들은 다른 세계를 본다거나 또는 다른 세계에 산다고 말하기도 한다.

10) Fodor(1990), p.244.

지각 기제보다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번째 전제의 경험적 적절성을 부정하는 포더 또한 위 논증의 첫 번째 전제를 수용한다는 것이다. 즉, 만일 인식 주체의 이론 또는 세계관이 그의 관찰에 침투될 수 있다면, 그러한 관찰은 이론이나 세계관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sup>11)</sup> 단지 포더는 이 조건문의 전건을 부정할 뿐이다. 사실, 포더가 그 조건문에 담긴 직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상대주의를 배척하고 과학적 합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의 목적을 위해 모듈성 논제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합리성을 보존하려는 철학적 작업은 이제 인지적 침투에 관한 경험적 탐구로 대체된다. 경험적 탐구를 진척시키는 작업이 중요하고 시급해진다. 이러한 상황인식이 결과주의에 동기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인지적 침투의 실재성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논쟁당사자들도 그것이 가지는 부정적 인식론적 함축에는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하고 있다. 결과주의는 바로 이러한 공통점에 착안하여 경험적 탐구를 진척시키고자 한다. 우리가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debate-neutral)” 정의를 찾고자 한다면 결과주의적 정의에서처럼 부정적 인식적 함축에 호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결과주의에 대한 인식론적 반론을 제기하는 철학자는 포더와 마찬가지로 위 논증의 결론을 부정하지만 포더와 달리 바로 첫 번째 전제를 문제 삼는다. 첫 번째 전제는 인지적 침투의 인식론적 함축에 대한 직관을 담고 있고 그러한 직관이 역사적으로 인지적 침투에 관한 탐구의 동기를 제공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인지적 침투의 존재 여부에 관한 심리학적 탐구가 더욱 진척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직관의 효용성이 그것의 정당함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과연 위 논증의 첫 번째 전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가? 경험이 배경 인지적 상태에 인과적으로 의존한다고 해도 이것이 반드시 경험의 인식적 위상에 차이를 가져오는가? 물론 결과주의자들도 배경 인지적 상태가 경험에 인과적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경우가 부정적 인식론적 함축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중 부정적

---

11) Fodor(1990), p.205.

인식론적 함축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인지적 침투”로 간주하자고 말할 뿐이다. 그러나 인식론적 반론을 제기하는 철학자는 배경 인지적 상태들이 경험에 인과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부정적 인식론적 함축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는다.

예를 들어, 질은 책이 화가 나 있다고 믿고 있고 이러한 믿음 때문에 질이 책을 보았을 때 책이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자. 질의 경험은 인지적으로 침투되었다. 그러나, 각 정당성에 대한 독단론적 견해(dogmatism)에 따르면, 책이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험 그 자체만으로 책이 화가 났다는 믿음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sup>12)</sup> 그 경험 주체의 입장에서 고찰해보라. 질은 애당초 아무런 이유 없이 책이 화가 나 있다고 믿었더라도 책을 보고 난 이후에는 최소한 책이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믿는다. 질은 자신의 기준 믿음 때문에 책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따라서 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액면가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인지적으로 침투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경험의 정당화 역할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질이 자신의 경험에 인지적으로 침투된 결과임을 알게 된다면, 즉, 책이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단지 자신이 그렇게 예상하였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면, 질은 자신의 각 믿음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정보 얻고 난 후에도 각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경험이 제공하는 정당성은 과기된다. 그러나 생성된 정당성이 추후 과기된다고 말하는 것은 애당초 정당성이 생성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다. 인지적으로 침투된 경험도 각 믿음에 초견적 정당화(prima facie justification) 또는 과기 가능한 정당화를 제공할 수 있다.

독단론을 옹호하는 프라이어는 인지적 침투가 부정적 인식론적 함축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인지적 침투가 실재한다고 볼 강력한 증거들이 있음을 인정한다. “관찰은 이론적재적이다”라는 문장이 동일한 시각적 자극에 노출된 두 사람이 그들이 가진 배경 이론들의 차이에 의해 다른 시각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 프

12) 독단론을 소개하거나 옹호하는 연구들로 Pryor(2000), Tucker(2010), McGrath(2016) 참조.

## 10 윤보석

라이어는 이러한 의미의 이론적재성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위 논증의 두 번째 전제는 참일 가능성이 크다. 단지, 경험의 인과적 역사는 경험의 인식적 위상에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 따라서 자신의 인식론적 이론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 배경 믿음들이 당신 경험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당신이 그 경험으로부터 확보하는 정당성이 그 배경 믿음들에 의존하거나 또는 그 배경 믿음들로부터 도출됨을 보여주는가? 당신의 선글라스는 당신의 경험에 인과적 영향을 끼치지만, 당신의 지각 믿음들은 선글라스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 만일 당신의 배경 믿음들이 선글라스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면, 과연 이 사실만으로 배경 믿음들이 지각 믿음의 정당화에 이바지한다고 결론 내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sup>13)</sup>

선글라스가 시각적 경험에 인과적 영향을 끼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글라스가 지각 믿음의 정당성의 원천이라고 간주되지는 않듯이, 배경 믿음들이 경험에 인과적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지각 믿음이 경험으로부터 도출하는 정당성이 배경 믿음에 의존한다고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프라이어처럼 독단론을 옹호하는 철학자가 인식론적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독단론을 옹호하는 철학자들만이 그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sup>14)</sup> 주관적으로 동일한 경험의 정당화 역할은 동일하다는 내재주의적 직관을 수용하는 인식론자는 경험의 인과적 역사가 그 경험의 인식적 역할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내재주의적 직관에 따르면, 경험의 정당화 역할에 대한 올바른 분석은 경험이 주체의 인식적 삶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경험 주체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주관적으로 동일한 두 경험은 인과적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노란 바나나를 환각하고 있는 사람의 경험은 노란 바나나에 의해 촉발되는 우리의 경험과 상당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믿음("내 앞에 노란 바나나가 있다")이 우리의 믿음만큼이나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경험이 인지적으로 침투된다

---

13) Pryor(2000), p.540.

14) Hummer(2013)와 Fumerton(2013)도 참조.

고 해도 이 사실이 경험의 인식적 위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 따라서 경험의 정당화 역할 상실에 호소하여 인지적 침투를 정의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이 인식론적 반론의 핵심이다.

결과주의적 접근을 옹호하는 사람은 인식론적 반론에 어떻게 대응 할 수 있나?

### 3. 두 가지 대응

결과주의 옹호자는 인식론적 반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시겔과 같은 철학자들은 인지적 침투가 부정적 인식론적 함축을 가질 뿐 아니라 그 함축이 순환성에 있다는 논증을 제시하였다.<sup>15)</sup> 위에서 언급된 질의 믿음 형성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믿음(P) --> 경험(P) --> 믿음(P)

질은 “잭이 화가 났다”라고 근거 없이 믿고 있고 이 믿음으로 인해 “잭이 화가 난” 것처럼 보이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질은 “잭이 화가 났다”라고 확신하게 된다. 그런데, 애당초 “잭이 화가 났다”라는 명제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마치 마술처럼 바로 그 동일한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 시겔은 이러한 순환적 방식으로 믿음이 경험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커피 원두를 넣지 않았는데 커피 머신을 작동하자 커피가 나올 수는 없다. 만일 질의 경험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했더라면 그 경험이 믿음을 정당화하는 정도 를 그 경험의 기본가(baseline)라고 한다면, 인지적으로 침투된 질의 경험 의 인식적 위상은 그 기본가 아래로 격하(epistemically downgraded)된다.

결과주의적 접근을 옹호하는 스톡스는 인지적 침투가 인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국 지각 경험이 그 주체의 심적 상태를 추적(tracking)하고 따라서 외적 환경을 추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

15) Siegel(2013)

## 12 윤보석

지각 경험이 외적 환경에 대한 신빙성있는 표상을 형성하지 못하며 이 것은 지각의 목적에 어긋난다. 즉, 인지적 침투는 지각적 표상의 객관성(objectivity)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객관성 위협이라는 외재주의적 설명은 시겔의 순환성 논의와 결을 달리한다.<sup>16)</sup>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톡스와 시겔 모두 인지적 침투가 부정적 인식론적 함축을 가진다는 데는 동의한다는 것이다. 인식론적 반론에 대한 직접적 대응에 따르면, 인식론적 반론은 경험의 어떤 인과적 역사도 그것의 인식적 위상과 무관하다는 잘못된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인식론적 반론에 대한 직접 대응은 결과주의적 접근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인식론적 논쟁이 의미가 있으려면 논쟁당사자들이 인지적 침투가 부정적 인식적 함축을 가지지 않을 여지를 남겨둬야 할 것이다. 사실, 인지적 침투가 부정적 인식적 함축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이를 논증하고 설명하려는 철학자들도 인지적 침투를 규정할 때 통상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느슨한 정의를 사용한다. 그러나 결과주의적 정의는 아예 부정적 인식적 함축에 호소해서 인지적 침투를 규정한다. 물론 결과주의적 정의에 따라서도 인지적 침투가 반드시 부정적 인식적 함축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결과주의적 정의의 세 가지 함축들은 선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부정적 인식적 함축이 없다고 해도 모듈성에 반하는 함축을 가지면 그 현상은 인지적 침투로 간주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결과주의적 정의는 인지적 침투가 부정적 인식적 함축을 가지지 않을 여지를 남겨 둔다. 그러나 인지적 침투가 부정적 인식적 함축을 가지느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하는 당사자들이 “인지적 침투”라는 개념 자체를 최소한 부분적으로도 부정적 인식적 함축에 호소하여 규정하지는 않을 듯하다. 인지적 침투가 부정적 인식적 함축을 가지지 않는다고 믿는 철학자는 부정적 인식적 함축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 것이 인지적 침투를 결정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볼 것이다.

결과주의적 접근에 더욱 부합하는 대응방식은 무엇일까? 철학자들은

---

16) 부정적 인식적 함축에 대한 내재주의와 외재주의의 갈등에 관하여 Jack Lyons (2011), Harmen Ghijsen(2016) 참조.

부정적 인식론적 함축의 여부와 중립적으로 인지적 침투를 이해하고 그 다음 인지적 침투가 부정적 인식론적 함축을 가지는지 아닌지, 그리고 가진다면 어떻게 설명할지, 따져볼 수 있다. 그런데 결과주의적 접근의 옹호자들은 자신들의 주된 관심사가 그러한 철학적 문제의 해결에 있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결과주의적 접근은 경험의 정당화 역할을 보존하거나 규명하는 인식론적 작업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 결과주의적 접근의 목적은 특정한 현상 - 지각과 인지의 상호작용들 중 일부분 - 에 관한 심리학적 탐구를 진척시키는 데 있다. 결과주의적 정의가 적절한지는 경험적 탐구를 수행하는 과학 공동체가 폭넓게 합의할 수 있느냐에 의존한다. 만일 과학 공동체 밖의 누군가가 “인지적 침투”라는 말을 결과주의적 정의에 따라 사용하지 않겠다면 이는 그의 선택이다. 그러나 결과주의적 정의의 적절성은 우선적으로 그 정의가 목적으로 하는 경험적 탐구의 성공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두 번째 대응방식에 따르면, 인지적 침투가 부정적 인식론적 함축을 가지느냐 아니냐는 질문은 결과주의적 정의를 평가하는데 유관하지 않다. 결과주의적 접근은 어떤 특수한 현상에 관한 과학적 탐구를 진척시키기 위한 방법론적 제안에 해당하며 따라서 경험적 탐구를 위한 유용한 정의를 제공하느냐 아니냐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경험의 정당화 역할 일반에 대한 철학자들의 규범적 관심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두 번째 대응방식은 결과주의적 접근을 인식론적 규범적 논쟁으로부터 단절시킴으로써 인식론적 반론을 피해갈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결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은 두 번째 대응이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동의하면서도 인식론적 논쟁과의 단절을 너무 강조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할 수 있다. 천현득은 결과주의적 접근이 특정한 과학에 국한되지 않고 과학적 실천 일반에 폭넓은 함축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과주의적 접근이 제시하는 틀 내에서 인지적 침투 발생 여부에 대한 보다 확실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보자. 어떤 현상은 인지적 침투이거나 혹은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이다. 만일 어떤 현상이 인지적 침투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정의상 아무런 부정적 인식적 함축이 없다. 따라서 인식론적 우려가 제기되지 않는다. 반면,

만일 어떤 경우가 인지적 침투로 확인된다면, 우리는 부정적 인식론적 함축이 있을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점의 올바른 인식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인지적 침투를 확인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지적 침투가 가질 수 있는 부정적 함축을 “무화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상이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두 과학자가 자신들의 이론이 자신들의 경험에 침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 갈등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첫걸음에 해당한다. 이제 그들은 “주의 통제와 훈련을 통해서 중립적이고 유사한 지각 경험이 가능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이론이 적재된 경험을 축소하여 “낮은 수준의 지각 경험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sup>17)</sup> 예를 들어, 고차원적 성질보다 눈금 읽기와 같은 단순한 위치 지각으로 제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천현득의 해석에 따르면, 결과주의적 접근은 인식론적 논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논쟁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즉, 결과주의적 접근은 인지적 침투가 부정적 인식적 함축을 가진다는 직관에 친화적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직관에 반발하며 인식론적 반론을 제기하는 철학자들의 관심사를 존중할 수 있다는 것

---

17) 천현득(2020), 102쪽. 천현득의 제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한 가지 반론은 다음과 같다. 정상과학을 수행하는 과학자는 패러다임을 내재화하는 단계에서 대상의 고차원적 성질을 직접 지각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지각 능력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패러다임 참여자가 되는 한 구성요소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상과학자가 그러한 능력을 다시 무효화시키는 것은 자신이 수용하는 패러다임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해 다른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하는 지각 능력을 갖추도록 재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패러다임에도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험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아예 과학을 포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천현득은 비교되는 두 이론에 상대적으로 그 두 이론과 중립적인 경험이 가능하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답변은 관찰의 이론적재성과 양립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두 이론에 공통적인 어떤 이론이 그 경험에 침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추가적 논의는 다른 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이다. 인지적 침투의 부정적 인식적 함축에 반발하는 철학자들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경험의 정당화 역할을 보존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지적 침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의 부정적 인식적 함축을 왜 걱정해야 하는가? 천현득의 결과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우선 심리학적 탐구를 진척시켜서 인지적 침투를 이해하고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이후에야 우리는 인지적 침투가 가질 수도 있는 부정적 인식적 위협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 경험의 정당화 역할을 보존하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천현득의 결과주의는 넓게 보아 “자연화된 인식론 (naturalized epistemology)”의 정신에 부합한다. 결국, 우리는 과학을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과학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과학적 지식이 축적되면서 과학적 지식을 축적하는 방법도 개선된다.

인식론적 반론에 대한 하나의 대응방식을 천현득의 논의로부터 추출해 보았다. 이제 인식론적 반론을 제기하였던 철학자가 과연 천현득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sup>18)</sup>

#### 4. 관찰의 이론적재성

프라이어는 관찰의 이론적재성이 여러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 세 가지 의미를 구분한다.<sup>19)</sup>

18) 한 심사자의 지적대로 이 논문의 핵심은 앞으로 전개될 4장과 5장에 있고, 그 두 장은 주로 필자 자신의 견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천현득 교수의 논의를 중심으로”라는 논문 부제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천현득 교수의 논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었고 또한 천현득 교수의 논문이 필자 자신의 견해를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과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논문 부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19) Pryor(2005), pp.540-541.

관찰의 이론적재성(1): 관찰 믿음의 정당성이 배경 이론에 의존한다.

관찰의 이론적재성(2): 관찰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 이론적 믿음이 필요하다.

관찰의 이론적재성(3): 동일한 시각적인 자극에 노출된 두 사람이 그들이 가진 배경 이론들의 차이에 의해 다른 시각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론적재성(1)과 이론적재성(2)는 관찰 믿음에 관한 이론적재성이며 이론적재성(3)은 관찰 경험에 대한 이론적재성이다. 그런데, 프라이어는 관찰 믿음에 관한 이론적재성(1)이 경험의 정당화 역할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보고, 경험의 정당화 역할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찰의 이론적재성(1)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의미의 이론적재성들 특히 관찰 경험에 대한 이론적재성(3)은 자신이 충분히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프라이어는 인지적 침투가 부정적 인식론적 함축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프라이어는 관찰 경험에 관한 이론적재성(3)을 수용하면서도 관찰 믿음에 관한 이론적재성(1)은 거부한다. 프라이어는 관찰 믿음에 관한 이론적재성이 더 심충적이라고 보는 듯하다. 비록 프라이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 인용문에서 천현득은 프라이어의 견해를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미론적 혹은 인지적 이론적재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지각적 차원의 이론적재성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 인식의 순서(지각-믿음-보고)를 고려할 때, 만일 이론적재성이 지각적 차원에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가장 심충적 차원의 (혹은 급진적인 형태의) 이론적재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문의 많은 비판자들은 이론적 믿음이 과학자들의 지각적 경험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sup>20)</sup>

문의 비판자들과 달리, 프라이어는 이론적 믿음이 지각적 경험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받아들인다. 천현득은 이것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 천현득 자신도 지각적 차원의 이론적재성을 받아들인다. 프라이어의

---

20) 천현득(2020), 93쪽 각주.

문제는 그가 관찰 경험에 관한 이론적재성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데 있다. 천현득은 지각적 차원의 이론적재성이 관찰 믿음이나 보고에 관한 이론적재성보다 더 심충적이고 급진적이라고 주장한다.

관찰 경험에 관한 이론적재성이 관찰 믿음에 관한 이론적재성보다 더 심충적인 측면이 있다. 이론이 관찰 믿음이나 관찰 보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론이 관찰 경험에까지 침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경 심적 상태들이 인지적 작업에 하향적 영향을 주지만 단지 판단이나 보고의 형성에만 개입한다면 그러한 영향은 인지적 침투의 사례로 간주되지 않는다. 인지적 침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나 가치관이 지각 경험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기억되는 방식에 영향을 끼쳤다던지(기억 해석, *memory interpretation*), 배경 심적 상태가 지각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던지(판단 해석, *judgment interpretation*) 등 대안적 해석들이 배제되어야만 한다. 굳이 인용하는 유명한 카드 실험에서 피실험자들이 빨간-스페이드-6 카드에 잠시 노출된 후 무슨 카드를 보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들은 “그 카드는 하트-6이다”라고 반응한다. 그 카드가 그들에게 하트-6처럼 보였는가? 카드의 색과 패턴에 대한 기존 지식이 경험에 침투하여 그 카드가 실제로 하트-6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카드가 그들에게 빨간-스페이드-6처럼 보이긴 했으나 그들이 그 카드를 판단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배경 지식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성이 있다. 우리는 하향적 영향이 판단, 보고, 기억에 미치지만 지각 경험에까지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각적 차원의 이론적재성이 위와 같은 의미로 “심충적”이라면, 지각적 차원의 이론적재성이 가장 심충적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프라이어 또한 이론적 믿음이 관찰 믿음과 보고에 인과적 영향을 끼치지만 관찰 경험에까지 도달하지는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프라이어는 관찰 경험에 대한 이론적재성(3)을 인정하고 관찰 믿음에 대한 이론적재성(1)을 부정하는가? 가장 심충적인 이론적재성을 인정하면서 덜 심충적인 이론적재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는가? 프라이어는 이 질문들 자체가 이론적재성(1)에 대한 잘못된 이

해에 기인한다고 반발할 것이다. 이론적재성(1)은 단지 관찰 믿음이 배경 이론에 인과적으로 또는 형이상학적으로 의존한다는 논제가 아니라 관찰 믿음의 정당성이 이론적 믿음에 의존한다는 논제이다. 관찰 믿음과 배경 이론 사이의 인과적 의존 또는 형이상학적 의존을 인정하면서 그 둘 사이의 인식적 의존은 부정할 수 있다.<sup>21)</sup> 실제로 프라이어는 관찰의 이론적재성(2)를 인정하면서 이론적재성(1)을 부정한다. 관찰 믿음을 가지기 위해 개념이 필요하고 개념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 믿음들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찰 믿음의 정당성이 반드시 그 믿음이 형이상학적으로 의존하는 모든 믿음들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sup>22)</sup>

이제 프라이어는 이론적재성(1)을 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천현득의 결과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천현득의 주장대로 과학자들이 인지적 침투의 사례들을 확인하고 그것의 부정적 인식론적 함축을 무화하고 상쇄하는 노력을 한다고 하자. 이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립적이고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경험의 인식적 역할에 대한 위협이 없어지는가? 프라이어는 관찰의 이론적재성(1)이 성립하는 한 위협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론적재성(1)이 성립한다고 해보자. 관찰 믿음의 정당성은 배경 이론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경험은 그 자체로 관찰 믿음을 정당화할 힘이 없다. 왜냐하면, 만일 경험이 혼자서 관찰 믿음을 어느 정도 정당화할 수 있다면, 관찰 믿음의 정당성이 최소한 부분적으로 배경 이론과 독립적으로 확보될 수 있게 되고 이는 이론적재성(1)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찰의 이론적재성(1)이 성립한다면 경험은 관찰 믿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 만일 경험의 정당화 역할이 관찰 믿음의 정당화에 있다면, 경험의 정당화 역할은 상실된다. 이러한 상실은 경험의 인지적 침투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한다. 따라서 인지적 침투가 제기하는 인식적 위협에 초점을 맞추는

21) 천현득은 이론적재성의 “강도”라는 차원을 말하고 강함/약함이라는 구분을 하지만, 이 구분은 인과적/형이상학적/인식론적 구분과 다르다. 천현득(2020), 92쪽.

22) Pryor(2005), p.183. fn.5 참조.

천현득의 제안은 이론적재성(1)이 제기하는 도전에 무력하다. 인식론적 반론에 대한 천현득의 대응방식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sup>23)</sup>

천현득의 대응방식이 가지는 한계점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자신의 입장에 대한 포더의 비판에 대응하는 논문에서 쳐치랜드는 자신의 입장의 핵심은 감각적 활동에 대한 개념적 반응의 가소성(*conceptual plasticity*)에 기반을 두고 관찰의 이론적재성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up>24)</sup> 동일한 감각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반응들이 가능하다면 관찰 용어의 의미와 관찰 판단의 정당성은 그 용어와 판단이 속하는 이론적 연결망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의 관찰의 이론적재성은 감각 경험의 가소성(*sensational plasticity*)과 무관하게 성립한다. 그런데 포더는 감각 경험의 가소성을 반박하는 데 몰두한다. 그러나 과학철학자들의 중심적인 관심사는 이론의 반증이나 입증에 있는데, 감각 경험은 그러한 관심사와 무관하다. 왜냐하면, 감각 경험은 이론을 반증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 감각 경험은 “전혀 다른 논리적 공간(*the wrong logical space*)”에 속한다. 따라서 쳐치랜드는 포더의 비판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23) 한 심사자는 이 단락에서 제시된 논의에 관해 “여기서 저자는 결과주의자가 관찰의 이론적재성 (1)에 의존한다고 보는 것 같다”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의 단락이 놓인 전체적 맥락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과주의라는 입장에 대한 인식론적 반론이 소개되었고 그 반론에 대한 천현득의 대응이 제시되었으며 이제 다시 인식론적 반론을 제기하는 철학자들이 천현득의 대응 또는 타협책에 반응해야 할 순서이다. 이것이 위 단락의 논의가 놓인 맥락이다. 저자는 프라이어를 인식론적 반론을 제기하는 철학자들의 한 명으로 간주하고 프라이어의 관점에서 천현득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추정하고 있다. 이것이 위 단락의 목적이다. 프라이어가 주목하는 관찰의 이론적재성(1)은 관찰 믿음에 대한 논제이다. 반면 결과주의는 어떤 종류의 관찰 경험에 대한 견해다. 프라이어는 결과주의가 이론적재성(1)을 가정한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결과주의와 무관한 이론적재성(1)이 그 자체 심각한 인식적 위협을 제기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결과주의에 기초한 천현득의 타협안은 이론적재성(1)이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4) Churchland (1988), pp.184-185.

천현득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도 유사한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론적재성(1)이 가지는 인식론적 위협은 인지적 침투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프라이어는 경험의 인식적 역할을 수용하고 이론적재성(1)을 부정하는 입장이라면 쳐치랜드는 역으로 이론적재성(1)을 받아들이고 경험의 인식적 역할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철학자들 모두 이론적재성(1)이 경험의 인식적 역할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관찰의 이론적재성 논제는 통상 관찰 언어, 관찰 믿음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쳐치랜드나 프라이어의 논의 또한 예외가 아니다. 여전히 관찰 믿음에 관한 이론적재성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관찰 믿음에 대한 이론적재성(1)이 경험의 인식적 역할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각적 차원의 이론적재성이 관찰 믿음이나 보고의 차원의 이론적재성보다 더 심층적이고 급진적이라는 천현득의 주장은 바로 위와 같은 상황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천현득의 결과주의는 기존 논의의 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논의의 틀을 고수하는 철학자들의 반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찰 믿음이나 보고 차원의 이론적재성이 특별한 인식론적 우려를 제기하지 않음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의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필자는 다음 장에서 관찰 믿음이나 보고 차원이 중심인 기존 논의의 틀에서 탈피하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5. 경험의 인식적 독립성

지각적 차원의 이론적재성이 가장 심층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우리는 위에서 관찰 믿음과 이론 사이에 성립할 수 있는 인과적, 형이상학적, 인식론적 의존관계를 구분하였다. 마찬가지로 관찰 경험과 이론 사이에도 그러한 구분을 할 수 있다. 관찰의 이론적재성

(1)이 관찰 믿음과 이론 사이의 인식론적 의존에 관한 논제였듯이, 우리는 관찰 경험과 이론 사이의 인식론적 의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관찰의 이론적재성(4): 관찰 경험의 인식적 위상 또는 인식적 기여가 이론에 의존한다.<sup>25)</sup>

이론적재성(4)는 이론에 대한 경험의 인식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정한다. 만일 우리의 이론과 세계관의 정당성이 궁극적으로 경험에서 온다면, 우리는 관찰의 이론적재성(4)를 거부해야 한다. 이론적재성(4)를 거부하더라도 관찰 경험과 이론 사이의 인과적 의존을 수용할 수 있다. 이론적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관찰 도구의 개발이 가능해지고 그 관찰 도구 덕분에 우리가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자. 이론적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이론적 믿음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이 반드시 그 이론적 믿음에 순응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경험은 자신을 인과적으로 유발한 이론을 수정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sup>26)</sup>

이제 이론적재성(4)와 이론적재성(1)의 관계에 주목해 보자. 이론적재성(4)를 부정하면서 이론적재성(1)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가? 이

25) 한 심사자는 이론적재성(4)가 타당한지를 묻고, “경험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나 ‘얻어진 것’으로서 정당화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론적재성(4)를 부정한다. 필자는 심사자의 지적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 논문의 맥락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론적재성(4)가 타당한가?”라는 질문이 아니고 “이론적재성(4)를 부정하는 사람이 이론적재성(1)을 궁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전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후자의 질문을 하고 답할 수 있다.

26) 쿤이 지적하듯이 패러다임 의존적인 정상과학 내에서도 예상을 벗어나는 관찰이나 실험이 발생할 수 있다. 산소이론이 등장하기 전에도 기존의 플로지스톤 이론에 잘 부합하지 않는 이상현상(anomaly)이 알려져 있었다. 플로지스톤 이론에 의해 인도된 정상과학적 탐구의 결과물들이 결국 그 이론을 위기에 봉착하게 했다. 새로운 것, 예상치 못했던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정상과학이 오히려 새로운 발견들을 생성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Kuhn (1962), p.64.

론적재성(1)이 성립한다면, 관찰 믿음의 정당성이 이론과 독립적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관찰 믿음의 정당성이 선결적으로 확보되고 그로부터 이론의 정당성이 파생적으로 확보되는 토대론적 구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런데 이로부터 경험의 정당화 역할 또는 인식론적 독립성이 상실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sup>27)</sup> 만일 이론적재성(1)을 받아들이면서 이론적재성(4)를 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지각적 차원의 이론적재성이 관찰 믿음에 대한 이론적재성보다 더 심충적이라는 천현득의 주장을 그러한 의미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제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제안\*> 관찰 믿음에 대한 이론적재성(1)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관찰 경험에 대한 이론적재성(4)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믿음보다 경험 차원의 이론적재성이 더 심충적이다.

경험의 인식적 역할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론적재성(4)을 부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론적재성(1)은 이론적재성(4)를 함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험의 인식적 역할을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이론적재성(1)을 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론적재성(1) 또한 반드시 부정해야 만 한다는 것이 프라이어의 입장이다. 제안\*에 따르면, 프라이어의 입장은 지각적 차원의 이론적재성이 가장 심충적임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천현득이 제안\*을 수용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프라이어의 비판에 대응하는 것도 용이해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천현득은 이론적재성(4)가 아니라 결과주의적으로 이해된 인지적 침투를 통해서 지각적 차원의 이론적재성이 가장 심충적임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천현득이

27) 프라이어도 이를 인정한다. “비순수 정합론 (impure coherentism)”에 따르면 관찰 믿음의 정당성은 다른 믿음들에 최소한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나 순수 정합론자와 달리 비순수 정합론자는 경험의 정당화 역할을 인정한다. 단지 비순수 정합론자는 경험들이 그 자체로(all by themselves) 관찰 믿음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다른 믿음들과 더불어 관찰 믿음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Pryor(2005), p.186. 비순수 정합론과 같은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론적재성(1)이 경험의 정당화 역할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제안\*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음을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천현득은 “채움 현상”을 지각적 차원의 이론적재성이 성립하는 한 대표적 사례로 간주한다. 채움 현상은 가려진 부분, 정보가 결여된 부분, 애매한 상이 있을 때 상위 인지나 이론으로부터 유래하는 정보에 의해 관찰이 채워지는 현상이다. 천현득은 채움 현상이 과학에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한 구체적 사례로서 갈릴레오 시대에 수십 년간 진행된 토성 관찰들을 소개한다. 17세기 초 많은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토성을 관측할 때 그들이 본 것을 그림으로 옮겼는데 모두 토성을 고리가 아닌 위성을 가진 것으로 묘사하였다. 그들이 단지 토성이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보고했을 뿐인가? 천현득은 갈릴레오에게 영향받은 천문학자들의 예상과 기대가 그들의 관측 경험 자체에 침투한 것으로 볼 근거들이 있다고 주장한다.<sup>28)</sup> 그 당시의 망원경으로 얻은 상 자체는 고리나 위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애매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실제로 토성이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토성이 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선입견이 지각 경험을 채워 넣었다고 할 수 있다. 시겔과 같은 철학자들처럼 천현득은 채움 현상이 심각한 인식론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자신들의 믿음에 의해 편향된 관찰이 어떻게 그들의 천문학적 믿음을 지지하거나 경쟁 가설을 평가하는 정당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가? 인지적으로 침투된 경험은 기존 세계관의 객관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없다. 묻는 사람의 의중을 눈치채고 질문에 답을 하는 증인을 신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인지적 침투의 부정적 인식론적 함축을 심각히 받아들이는 철학자도 모든 경험이 인지적으로 침투되었다는 강한 형태의 이론적재성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천현득은 모든 경험이 이론중립적이지는 않다는 약한 형태의 이론적재성을 옹호할 뿐이다.<sup>29)</sup> 즉, 적어도 일부 관찰은 이론적재적이다. 따라서 이론중립적 경험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험들의 인식적 위상은 이론의존적이지 않음으로 따라서 모든 경험의 인식적 위상이 이론의존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론적재성

28) 천현득(2020), 97쪽.

29) 천현득(2020), 93쪽.

(4)는 틀렸다. 천현득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론적재성(4)를 부정할 수 있다. 즉, 인지적 침투의 부정적 인식론적 함축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천현득의 방식으로 이론적재성(4)를 부정할 경우 이론적재성(1)을 수용할 수 없게 된다.<sup>30)</sup> 왜냐하면, 인지적으로 침투되지 않은 경험들은 관찰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고 따라서 관찰 믿음의 정당성이 항상 이론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이론적재성(1)에 따르면, 모든 관찰 믿음의 정당성은 이론에 의존한다. 따라서 최소한 일부 관찰 믿음의 정당성이 이론독립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면, 이론적재성(1)은 부정되어야 한다. 즉, 천현득의 입장 내에서는, 이론적재성(1)이 이론적재성(4)를 함축한다. 따라서 이론적재성(1)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론적재성(4)를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므로 천현득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제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천현득과 다른 방식으로 이론적재성(4)를 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대안적 방식은 다음과 같다.

17세기 천문학자들의 경험이 “토성 주변에 위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이 그들의 기존 천문학적 믿음이 침투된 결과라고 하자. 즉, 경험이 세계가 어떠하다고 표상하는 이유가 그 주체가 세계가 그러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경험 내용을 받아들이려면 선결적으로 주체의 기존 믿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험에 호소하는 것은 순환적이 된다. 인지적으로 침투된 경험은 지각 믿음을 정당화하는 힘을 상실한다. 여기까지 천현득에 동의한다고 하자. 그런데, 지각 믿음을 정당화하는 힘을 상실했다고 해서 반드시 인식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는가? 우리가 경험의 인식적 기

30) 한 심사자는 이 문장이 참이라고 해도 “이러한 점이 결과주의적 정의를 받아들이는 천현득에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결과주의적 정의는 관찰의 이론적재성(1)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대로 필자는 결과주의적 정의가 관찰의 이론적재성(1)에 의존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가정에 기반을 두고 천현득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각주 22참조.

여가 그것의 내용에 있다고 가정하는 한, 우리는 인지적으로 침투된 경험의 인식적 독립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비록 인지적으로 침투된 경험의 내용은 기존 믿음에 반할 수 없고 중립적이지 않더라도, 그 경험의 인식적 기여가 상실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용이 그 경험의 유일한 속성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감각 경험은 우리가 소위 “질적 또는 현상적 성질(qualitative or phenomenal character)” 또는 “현상성(phenomenology)”이라고 부르는 성질을 가진다. 그 현상적 측면은 여러 다른 이론이나 세계관과 결합하여 여러 다른 지각 판단을 산출할 수 있다. 17세기 초 천문학자들은 자신들의 현상적 경험에 대하여 “위성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동일한 현상적 경험에 대해 다른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상과 개념이 다르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현상에 대해 “고리가 있다”라는 지각 믿음을 형성할 수 있다.<sup>31)</sup> 또는, 아예 지각의 대상은 외적 대상이 아니라 감각 소여와 같은 심적 대상들이라는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동일한 경험에 대해 “어떤 종류의 감각소여가 있다”라고 반응할 것이다. 경험의 현상적 측면은 특정한 이론이나 세계관으로부터 인식적으로 중립적이다.<sup>32)</sup> 현상적 측면이 존재하고 그

31) “토성이 위성을 가진다”라는 내용을 가진 경험은 어떤 경우에도 “토성은 고리를 가진다”라는 믿음을 정당화해 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토성이 위성을 가진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경험의 현상적 속성에 주목할 경우 그 경험은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 적절한 배경 세계관과 결합할 경우, “토성은 고리를 가진다”라는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 Gupta(2006), p.107.

32) 한 심사자는 “이론적재성 (4)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러한 감각 경험의 현상적 성질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묻는다. 통상 감각 경험의 표상적 내용(representational content)에 이론이 적재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어떤 철학자들은 감각 경험의 내용이 경험 주체가 가진 개념이나 믿음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맞는다고 해도 여전히 감각 경험의 내용 중에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 비개념적 내용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감각 경험이 현상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은 비개념적 내용보다 훨씬 덜 논란거리이다. 개념이나 믿음을 가지지 않는 개체도 현상적 경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재성(4)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현상적 성질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개념이나 믿음을 가지지 않는 개체도 현상적 경험을

리고 그러한 측면이 인식적 역할을 결정하는 한, 비록 그 천문학자들의 경험(내용)이 그들의 기준 믿음에 인과적 또는 형이상학적으로 의존한다고 해도 그 경험은 인식적으로 독립적일 수 있다.

인지적으로 침투된 경험이 그 경험의 내용에 해당하는 지각 믿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해도 경험의 인식적 역할을 결정하는 다른 어떤 특성(내용과 다른)이 있을 수 있다. 현상적 성질이 바로 그러한 특성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론적재성(4)을 부정하는 것은 이론적재성(1)을 전혀 배제하지 않는다. 즉, 우리는 어떤 관찰 믿음들의 정당성은 이론독립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이론적재성(4)를 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인지적으로 침투된 경험이 지각 믿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철학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 제안\*을 받아들이는 철학자는, 프라이어나 쳐치랜드와 달리, 관찰 믿음에 관한 이론적재성(1)을 수용하면서도 이론적재성(4)를 거부하고 경험의 인식적 독립성을 수용할 수 있다.

관찰 믿음의 정당성이 이론에 의존한다면 그리고 이론의 정당성의 궁극적 원천이 경험이라면 경험의 기여는 관찰 믿음의 정당화에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관찰 믿음이 우선적으로 정당화되고 이론적 믿음들은 그로부터 파생적으로 정당화되는 구조가 아니라면 경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이론과 세계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기여하는가? 명제적 토대(propositional foundation)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경험의 기여는 정확히 무엇인가?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들을 이제는 외면할 수 없다. 경험의 인식적 기여에 대한 분석은 관찰 믿음이나 보고 차원의 논의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한다. 지각적 차원의 이론적재성이 관찰 믿음이나 보고에 대한 이론적재성보다 더 심층적이라는 천현득의 통찰이 가지는 진정한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다.<sup>33)</sup>

---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단지 현상적 성질이 경험의 인식적 위상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필자는 경험의 인식적 위성이 현상적 성질에 수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33) 꼼꼼하고 유익한 논평을 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참고문헌

- 천현득 (2020), 「지각의 인지적 침투와 관찰의 이론적재성」, 『과학철학』 23권 1호, pp.75-107.
- Churchland, P. M. (1988), "Perceptual plasticity and theoretical neutrality: A reply to Jerry Fodor". *Philosophy of Science* 55: 167 - 87.
- Firestone, C., Scholl, B. J. (2016), "Cognition does not affect perception: Evaluating the evidence for "top-down" effect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pp.1-77.
- Fodor, J. (1990), *A Theory of Content and Other Essays*, The MIT Press.
- Fumerton, R. (2013), "Siegel on the epistemic impact of "checkered" experience", *Philosophical Studies*, 162: 733 - 739.
- Ghijssen, H. (2016), "The real epistemic problem of cognitive penetration", *Philosophical Studies*, 173: 1457 - 1475.
- Gupta, A. (2006), *Empiricism and Experience*, Oxford University Press.
- Huemer, M. (2013), "Epistemological asymmetries between belief and experience", *Philosophical Studies*, 162: 741 - 748
- Kuhn, T. 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yons, J. (2011), "Circularity, reliability and the cognitive penetrability of perception", *Philosophical Issues*, Vol. 21, THE EPISTEMOLOGY OF PERCEPTION, pp. 289-311  
Published by: Ridgeview Publishing Company
- McGrath, M. (2013), "Phenomenal Conservatism and Cognitive Penetration: The "Bad Basis" Counterexamples", in *Seemings and Justification*, Tucker, C. (ed.), Oxford University Press.
- McGrath, M. (2016), "Looks and Perceptual Justificatio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 Pryor, J. (2000), "The Skeptic and the Dogmatist." *Nous* 34.4 : 517 - 549.

- Pryor, J. (2005), “There is immediate justification”, in *Contemporary Debates in Epistemology*, Matthias Steup and Ernest Sosa (eds.), Blackwell Publishing.
- Pylyshyn, Z. (1999), “Is vision continuous with cognition? The case for cognitive impenetrability of visual perceptio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2(3): 341-365.
- Siegel, S. (2013), “The epistemic impact of the etiology of experience.” *Philosophical Studies* 162, 697-722.
- Silins, N. (2016), “Cognitive penetration and the Epistemology of Perception.” *Philosophy Compass* 11(1): 24-42.
- Stokes, D. (2013), “Cognitive Penetrability of Perception.” *Philosophy Compass* 8(7): 646-663.
- Stokes, D. (2015), “Towards a consequentialist understanding of cognitive penetration.” in J. Zeimbekis & A. Raftopoulos(Eds.), *The cognitive penetrability of perception. New philosophical perspectiv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75-100.
- Tucker, C. (2010), “Why Open-Minded People Should Endorse Dogmatism.” *Philosophical Perspectives* 24(10:529-45.

논문 투고일	2021. 04. 13
심사 완료일	2021. 06. 02
제재 확정일	2021. 06. 02

---

## Cognitive Penetration, Consequentialism and Empirical Rationality: with a focus on Prof. Cheon's discussion

Bosuk Yoon

---

The consequentialist approach to cognitive penetration, proposed as a solution to the methodological problem caused by currently available definitions, defines the phenomenon by its consequences. The consequentialist approach understands cognitive penetration in part by its negative epistemological consequences such as undermining the epistemic role of experience. A possible objection to the consequentialism is that the causal history of an experience is irrelevant for shaping its epistemic role and thus cognitive penetration should not be defined in terms of negative epistemological consequences. By focusing on this objection and Cheon's response to it, this paper aims at disclosing problems with the consequentialist approach. Toward the end, an alternative response to the objection will be proposed that preserves the insight contained in Cheon's response.

**Keywords:** Cognitive penetration, consequentialism, theory ladenness, epistemological consequence